

나노기술 개발 2031억원 투입

나노기술전문위원회 확정 ... 2002년 투자액 93.1% 증가

과학기술부는 나노기술에 총 2031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2002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과기부는 3월8일 개최된 제1차 '나노기술전문위원회(위원장 유희열차관)'에서 2001년 7월 확정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구축 및 인력양성의 3대 시책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나노기술개발을 8개 부처로 확산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나노기술연구개발 지원체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를 우선 선택해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나노소재분야·전자소자분야·컴퓨터기억장치·분자논리소자 등으로 구분해 개발대상기술을 도출하고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대 사업시책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은 주요 부처별로 과기부는 나노소재·나노메카트로닉스·나노핵심기반기술을, 산자부는 나노섬유·NT차세대산업화요소기술·나노측정·표준화기술을, KIST는 신개념 나노스핀소자기술·Bio-microprocessor 요소기술을, 화학연구원은 광기능성 나노캡슐·나노전자소재·나노분자소재 등 7개 과제를 분산해 맡기로 결정했다.

분산된 연구개발사업은 테라급나노소자, 분석용 나노바이오칩 등 고부가 가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신산업연구에 집중되며 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나노종합Fab센터 구축 및 차세대자기공명장치(NMR)를 설치하고 '나노기술산업화지원센터'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며 나노기술 종합정보시스템(e-R&D 지식 포털체제)을 구축할 예정이다.

2002년 정부부문 나노기술분야 투자계획은 2001년에 비해 93.1% 증가한 2031억원으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투자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중앙부처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나노기술과 연관성 있는 연구개발 투자분을 반영한데 기인하고 있다.

사업분야별로는 연구개발부문이 1602억원으로 총투자액의 78.8%를 차지하고, 시설·정보 등 인프라부문은 전년 대비 약 1100% 증가했다. 과학기술부가 총 투자액의 약 51%를 점유하고 있으며 산자부 17%, 환경부 10%, 국무조정실 9%, 정통부 8%를 차지했다.

나노기술전문위원 위원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위원장	유희열	과학기술부 차관	학 6명 연 5명 간 사	황정남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당연직 (6명)	고재방	교육부 차관보		국 양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최석식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		김기문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교수
	김철두	산업자원부 차관보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교수
	변재일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장		최덕균	한양대 세라믹공학과 교수
	임상규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최진호	서울대 화학과 교수
	강윤구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김희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재료연구부장
위촉직 (16명)	산 5명	이제호	삼성서울병원 임상의학 연구소	김병기	기계연구원 재료연구부장
		박영진	하이닉스반도체 신소재담당 기술고문	박경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신미남	(주)Fuel cell power 사장(여)	이조원	테라급나노기술개발 사업단장
		정선휘	삼성종합기술원 부사장(CRO)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여)
		김성태	LG 전자기술원 상무	정 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국장
				김학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기단장

전문위원회에서는 국가 전략기술분야인 나노기술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2002년 제정기로 결정했고, 신생기술인 나노기술 분야에 핵심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임을 고려해 고급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유희열 차관은 회의에서 '나노기술개발촉진법'제정이 시기상조라는 논란에 대해 나노기술을 촉진시키고 활성화 시키면 국가경쟁력을 제고되는 등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강조하고 입법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관련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해 2002년 법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 03/ 14>